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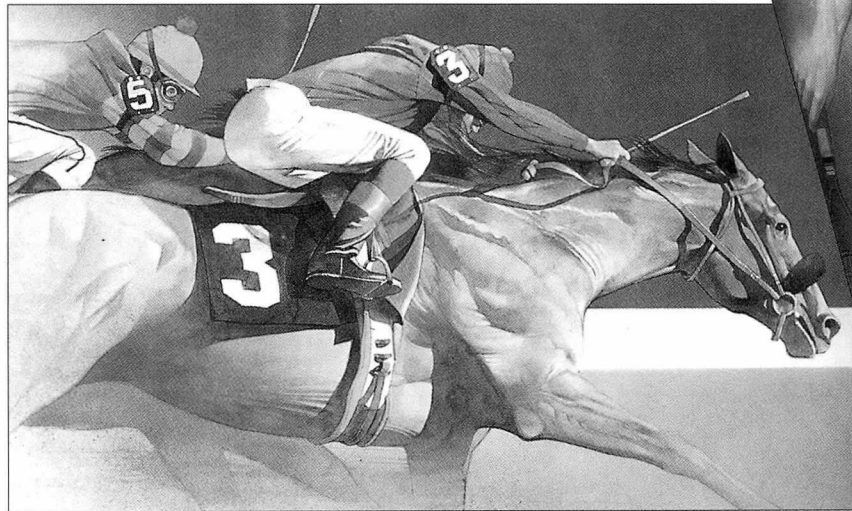
경기력 향상과 관전 흥미 배가

경기규칙과 기술, 선수분석 등을 담은 스포츠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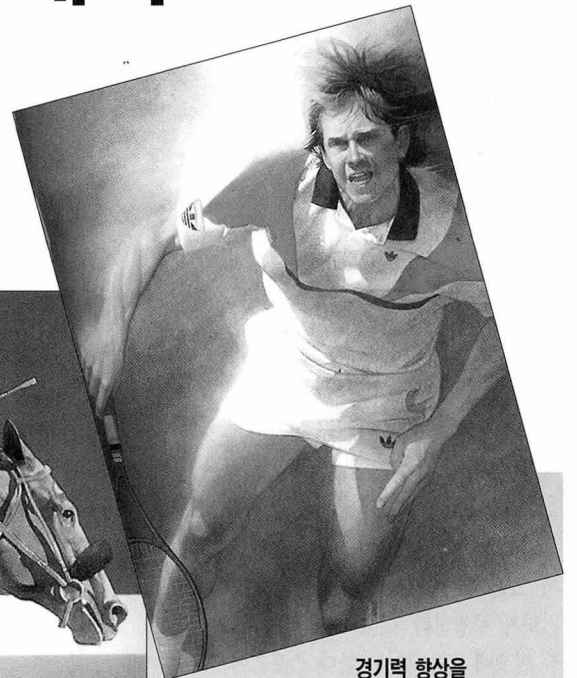
‘매뉴얼(manual)’은 편람·안내서·지침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스포츠 매뉴얼은 선수에게는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팬들에게는 경기 관전의 흥미를 배가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먼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을 살펴보자. 이 분야는 인기 있는 단체경기인 ‘테니스’ 스포츠로 양분된다. 농구·축구·야구 등 프로리그가 있는 종목과 볼링·테니스·골프 같은 프로선수보다 직접 참여하는 인구가 많은 종목을 소개하는 책들이 많다. 투기 종목으로는 ‘국기’인 태권도 서적이 압도적이다. 내용은 경기규칙과 기초 기술, 그리고 효과적인 훈련방법 등을 다뤘다.

최근 출간된 《소프트 볼》(세창출판사) 또한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소



‘소프트 볼’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야구와 흡사한 경기. 다른 점은 공이 야구공보다 크



경기력 향상
위한 매뉴얼은 주로 태권도·볼링·테니스·골프 등 참여인구가 높은 종목의 책들이 많다. 팬을 위한 매뉴얼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벽을 뛰어넘어 시즌 전망, 권력과 선수분석을 담은 수준 높은 책들이 많다.

고 방망이는 짧고 가늘다. 투수도 반드시 언더핸드로 던져야 한다. 이 책은 캐치볼·타격·번트·베이스 러닝·도루 같은 소프트 볼의 기초기술과 그것을 연마하기 위한 훈련법을 다뤘다. 공격과 수비에서의 개인 및 팀 전술도 언급했다.

경기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과 직업으로 삼는 선수에게 요구되는 경기력의 수준은 차이가 나게 마련. 스포츠 매뉴얼은 다양한

높이를 맞추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농구 매뉴얼은 좋은 본보기다. 《농구가이드》《농구교본》《농구교실》 같은 책은 초보용이고, 《바스켓볼-농구를 잘 아는 길, 잘 하는 길》(하나로, 1997)과 《1528 농구코트 속의 비밀들》(어문각, 1997)은 고급용이다.

팬들을 위한 매뉴얼은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을 넘어선다. 《허구연의 98프로야구 핸드북》(동도원)은 프로야구 관전을 위한 ‘도우미’. 각 구단의 전력 분석과 올 시즌 전망, 선수 개인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특히, 타자들의 경우 코스별 강·약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구성했다. 여백에는 야구 관련 용어를 풀이해 놓기도 했다. 만루홈런을

를 벌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역대 세계 스포츠사를 살펴보면 마케팅의 성패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낳았다. 미국과 일본이 개최한 올림픽은 천문학적 후자를 남겼지만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만큼 적자를 보기도 했다. 스포츠 마케팅이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야로 부각된 것이다.

비단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만 마케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 슈퍼스타에게

황금알 품은 ‘스포츠 마케팅’

관련서 대부분 교재 성격 ... 출판계의 관심 절실

금세기 마지막 월드 스포츠 축제인 프랑스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프랑스월드컵조직위원회가 예상하는 비즈니스 총액은 2조원. 연인원 370억명의 시선이 모아질 지구촌 축제에 걸맞게 조직위가 얻을 순수입은 6천500억원이 넘는다. 또한 250만 관광객이 뿌릴 돈과 고용창출, 산업활성화에 따른 경제효과는 프랑스의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 우리가 개최할 2002년 월드컵은 더욱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위’는 생산유발효과 7조9961억원, 부가가치 3조7169억원, 그리고 24만5338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포츠 마케팅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월드컵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시킨 것은 FIFA의 탁월한 마케팅에서 비롯된다. 월드컵과 함께 올림픽 또한 ‘돈잔치’





뜻하는 '그랜드 슬램'은 카드놀이의 하나인 브리지 게임에서 온 말로 최고의 한방이라는 뜻이고 더 값진 것은 없다는 의미다.

국내에도 MLB(메이저 리그, 야구)·NBA·NFL(미식축구)의 팬이 꽤 많다. 《미프로농구 선수사전》(미래사, 1997)은 NBA 매니아를 위한 책. 스타급 선수 60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비롯해 440명 선수 전원에 대한 프로필을 수록했다. 미식축구는 시즌이 시작되는 9월이면 미군 방송이나 스포츠 전문채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기다. 미식축구는 국내에서 소수의 동호인들만이 게임을 갖는 탓에, 처음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미식축구》(하늘출판사, 1997)는 아예 '텔레비전 중계 관전용 가이드'라는 쓰임새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발돋움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변신과정에서도 마케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명실공히 슈퍼스타로 부상한 그를 놓고 세인들은 스포츠 재벌가로의 탄생을 예견한다. 하지만 그의 잠재 능력을 발굴한 것과 더불어 상품가치를 예측한 다저스구단의 마케팅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상품화에 성공한 다저스구단은 투자 대비 몇 곱절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스포츠 마케팅은 선수운용, 시설운영, 관중에 대한 서비스, 기획행사 등의 스포츠 자체에 머물지 않고 관련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스포츠 선진국의 경우 스포츠 관련산업은 이미 다국적 시장개척에 나설 만큼 성장했다. 나이키·리복·아디다스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포츠용품들은 바로 성공한 스포츠 마케팅의 또다른 모습을 대변한다. 《스포츠 저널리즘과 스포츠 마케팅》(커뮤니케이션북스)에 따르면 일본의 스포츠용품 광고는 전자·자동차·음료수 분야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 관련 산

철저하게 '관전용'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진 책들도 있다. 경마·경륜 관련서적이 그것. 여기에는 《경마 길라잡이》《경마베팅 가이드》《경륜입문》 등이 있다.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경마장 입장객은 더욱 늘었다고 한다. 다만 문화일보 김문영 기자의 조언은 명심해야 할 듯. "경마로 돈을 따는 확률은 없다. 다만 돈을 따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경마베팅 가이드》에서) 《최성일》

업과 스포츠 마케팅의 긴밀함을 보여주는 예다.

우리나라 역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축구·야구·농구 등 인기 스포츠가 프로화되면서 구단 또는 기업들이 마케팅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스포츠 마케팅 능력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용인대 한이석 교수는 "스포츠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무한하다. 그러나 우리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에 적용할 마케팅 이론서 없어

경영학 측면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연구한 자료도 거의 전무하다. 한국야구협회(KBO)의 홍보담당 강승문씨는 "구단마다 자체적인 스포츠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점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책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경영학》(대한미디어), 《스포츠·사회체육 마케팅》, 《헬스/휘트니스 서비스 마케팅》(21세기 북스), 《스포츠 마케팅》(대경), 《스포츠 마케팅》(태근) 등은 교재 성격이 짙다. 갈수록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관련산업은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경영에 적용할 이론서가 없는 게 현실이다. 스포츠 마케팅 이론 또는 실용서에 출판계가 눈을 돌릴 때다. — 오완진 기자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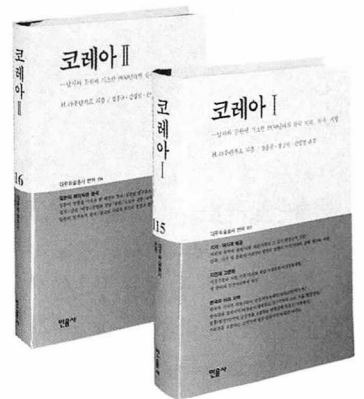
서양지리학자가 탐구한 한국

H 라우텐자흐 지음 《코레아》(I·II)

독일의 지리학자 헤르만 라우텐자흐가 1930년대 조선을 여행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코레아 Korea》(1945, 김중규 외 옮김)로 펴낸 이후 50여년 만에 대우학술총서로 번역돼 나왔다. <답사와 문헌에 기초한 1930년대 한국지리, 지지, 지형>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일제 강점하에 있던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식생파복, 야생동물 생활(이상 1권), 일본이 영향을 미치게 된 배경과 경과, 일본의 일부로서 한국(II권) 등까지 세세히 언급하고 있어 관련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던질 만하다.

특히 <옛 한국의 인문지리학적 특성>에서 저자는 한국인을 흰옷과 전통적인 헤어스타일, 갓 등 동아시아에서도 유일하고 독창적인 인문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키가 크고 힘센 인종이며, 본래 선량하고 협조적이며 지적이고 탁월한 언어자질을 지녔다고 서술한다.

한편 <일본의 일부로서 한국>의 글에서는 1938년 일본 총 수입액 49억엔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외수령에서 수입된 것이며, 그



3분의 1을 한국이 공급했다는 사실, 또 38년 일본의 수입량 중 쌀 63.2%, 보리 92.9% 생사 98.4%, 사과·중석 100%를 한국에서 수입한 것 등의 자료를 밝혀 일본의 가혹한 한국침탈 실상을 읽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서양지리학자는 한국을 이렇게 요약한다.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고유 문화를 가진, 동아시아의 온대 계절풍 지역에 위치한 반도국가로서, 이 책에서 다뤄진 것과 같은 상세한 지리적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뚜렷하게 각인된 개성을 지닌 국가이다."

민음사/A5신/1058면/1권 36,500원 II권2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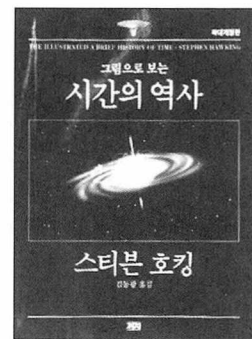
화제의 책

시각적 즐거움으로 이해하는 우주

스티븐 호킹 지음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

"뛰어난 기지로 복잡한 우주물리학을 설명할 수 있는 인물"(뉴욕 리뷰오브북스) 등 매스컴의 격찬을 받은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김동광 옮김)는 전세계 40개국어로 번역, 900만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지만, 막상 책을 구입하고도 읽지 않은 책 1위로 꼽힐 만큼 그 내용 파악이 만만치 않았던 책이다.

이 책은 호킹의 명쾌한 서술에도 불구하고 내용 파악이 어려웠던 복잡한 개념을 240점 이상의 원색그림, 컴퓨터 영상 자료사진 등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있다. 호킹 자신의 최근 연구성과와 함께 <벌레구멍과 시간여행>이라는 새로운 장을 추가했다. "우주가 일련의 합리적인 법칙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우리가 그 법칙들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호킹의 믿음이자 그



의 연구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그대로 배어 있다.

시간과 공간, 팽창하는 우주, 불확정성의 원리, 블랙홀, 시간의 화살 등 블랙홀을 중심으로 한 세계와 우주 이론을 풍부한 원색 사진과 도표, 신비한 컴퓨터 그래픽 등 시각적 즐거움과 함께 전한다.

까지/B5/250면/20,000원